

뉴스 & 뉴스

조계종 스님 전산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종무원의 능력을 높이고 스님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전자계산원에서 '조계종 스님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대만서 WFBY 이사회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회장 솜마이, 이하 WFBY) 상임이사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다. 대만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이번 이사회는 '정기 뉴스레터 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리는 제12차 총회' 등 5가지 안건이 논의된다.

이번 상임이사회에는 WFBY 이상대 부회장, 한국본부 이치란 회장, 백인기 교수(동국대) 등 6명이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20일 '불광' 2대 법주 추대

불광사와 불광법회는 제2대 법주 지정스님 추대식별회를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봉행한다. 지정스님은 65년 광덕스님은 은사로 출가, 67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장춘사 불광사 마하사 등의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말안 불사 주지로 있다. 스님은 5월 16일 광덕스님 49재 때 만장일치로 불광사 제2대 법주에 추대됐다.

영암스님 12주기 추모제

강남 불사(주지 원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영암스님 열반 12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7일 정진대법회를 개최하고 개척도량의 모범사찰과 사부대중 재결집을 발원한다. 정진대법회 기간 동안 사시기도에 맞춰 금강경독송과 영암스님 육성법문을 청취하고 참배단도 설치한다. 회향일인 20일 오전 11시 불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는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추모법문도 들린다.

5·18 영령 위로법회

대한불교 불승총(총무원장 문광)과 광주 출신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6일 광주 5·18묘지와 문화예술회관에서 '차와 국악이 함께 하는 국민화합 큰만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5·18 영령 위로와 동서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호남 불자 2천5백여명과 한화갑 국민회의 총재특보단장, 조순준 추미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중 5·18청년동지회 간부 유모씨가 한화갑 총재특보단장에게 오물이 든 비닐봉투를 투척해 한때 소동을 빚기도 했다.

'두레살림터' 시범운영

조계종, 사찰-지역 묶는 공동체 구축
중소도시·농촌대상 복지사업 전개

우리 교유의 두레와 같이 지역 사찰과 지역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고산)은 지난 10일 전국의 사찰이나 포교원을 '우리동네 두레살림터'를 운영할 사찰을 모집해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레살림터' 프로그램 운영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지난달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시행의 지원단위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두레살림터는 지역복지관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및 공동체, 주거환경, 주민대동 이벤트, 문화행사 등 6개 분야의 두레지기가 조직된다. 두레지기는 쓰레기 수거,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 생활과 관련한 1백8개의 두레살림지표를 만들어 세부활동을 전개한다.

두레살림터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재단 박찬정 과장은 "사찰과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신행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의 성과가 좋을 경우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제2건국 불교실천 방안

각 종단 소임자 간담회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지성 대교종 총무부장, 무의 진각종 문사부장, 범법 관음종 교무부장 등 각 종단 주요 소임자스님들은 제2건국 불국민추진위원회(이하 제2건국위)와 함께 10일 제2건국위 대회의실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한 불교계의 실천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건국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불교계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의 지난 1월 워크숍 후속모임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제2건국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실천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제2건국운동 추진 방안으로 불교계에서 지역활동을 해소하는 국민화합운동 전개와 범종교적으로 모든 종파가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합운동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공금 13억 횡령 잠적 불국사 진현스님 수배

경주 불국사 재무국장 진현스님이 사찰공금 13억여원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총경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진현스님을 수배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했다.

한편 불국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최근 검찰에 제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현스님이 인출한 공금은 불국사 문화회관 건립 기금으로 알려지고 있다.

psdo@buddhania.com

"김태복소장 유죄 어불성설"

예비역군법사회·새불교승가회 항의성명

조계종 이달중 공동번호인단 구성키로
육참총장 선고형량 '징역 1년'으로 감형

전 17사단장 김태복 소장의 01여단 군법당건립관련 1심 유죄선고와 관련 군내부의 종교갈등과 사기저하를 우려해 침묵을 지키던 '육해공군 예비역군법사회'(회장 성광)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욱·석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군의 종교편향적 재판에 대한 불교계의 항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예비역군법사회는 11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군법당에 대한 3천3백만원의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해 기소한 점과 1심 소장에 대한 부당한 재판진행에 대해 국방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비역군법사회는 이날 '김태복 소장 선고공판 관련 성명서'

예비역군법사회·새불교승가회 항의성명

를 채택하고 "군 당국은 군정신전력 합양을 위해 건립한 군법당을 뇌물수수 수단의 오인케하여 불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짜맞구기식 억지 주장과 증인의 허위증언 등을 일삼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김 소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원칙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욱·석담)도 8일 김 소장 관련 성명서를 통해 "종교활동에 쓰이는 보시금은 뇌물이나 차차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이기에 이번 판결은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판"이라며 "국방부와 군 재판부 관계자들이 좀더 신중하고 공평한 심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동신 육군참모총장은 2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5월 26일 1심선고공판에서 김 소장에

합한 불교계 전체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종교편향대척위 손상훈국장은 "불교계의 지속적인 항의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취해 온 군 당국이 대한 교계의 정서는 한마디로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참음만큼 참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 국민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민심이반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회가 10·11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렸다. 해인사 스님으로부터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는 가이드들.

불교문화체험 관광가이드 연수

해인사에서...60명 참여

관광가이드들이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회가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현) 주최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10·11일 1박 2일간 해인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각 여행사에서 나온 총 60명의 관광가이드가 참석한 이번 연수

를 양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관광가이드들의 호응이 높다.

또한 관광가이드들에게 정확한 불교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뿐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참가한데 점에서 '포교의 장'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가이드들의 의욕을 채워줄 보다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활동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한현=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영생교 PC통신 선교활동 '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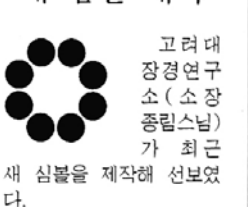
유니텔불교동호회 겨냥 불교채곡등 궤변 일삼아

PC통신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 시삼 정경자, 이하 유불동)를 겨냥한 영생교의 선교활동이 극성일수록 궤변으로 선교를 받고 있다. '몽고의 별' '웬두리번' '금화중지' 등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금강암>에 나오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을 모든 석존의 불법

은 마치 꿈과 허깨비,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왜곡하는 등 불경을 작위적으로 해석하거나 교묘히 짜맞춘 불교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또 '귀의 진상보하음고' '나무미려애래불' 등 불보살의 명호까지 들먹이며 유불동 불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한 술 더 더 유불동 회원 개인에게 직접 이메일(E-Mail)을 보내 인신공격을 하거나 괴리하는 짓을 벌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고려대장경연구소 새 심볼 제작



고려대 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가 최근 새 심볼을 제작해 선보였다. 이번엔 선보인 심볼은 중앙대 예술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소장 유제국)와 김준교 교수(중앙대)가 함께 디자인한 것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시각디자인 통일계획인 V.I.P.(Visual Identity Program)작업의 일환이다.

팔만대장경과 팔장도를 상징하는 8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새 심볼의 전체 원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의 번와 망상을 제거하는 법륜이 되어 마침내는 중생의 본래 마음 자리아인 일원상(一如相)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jvgang@buddhania.com)

천안 불광사 옆 교회 신축공사로 소음피해등 심각

11년째 포교를 해오고 있는 사찰 바로옆에 담도 설치하지 않은 채 교회가 들어서 소음피해로 인한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 바로 옆에 사랑의교회가 사람통행도 안될 정도의 공간을 뜯어 소음피해를 심화하고 청문을 불광사와 마주보도록 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불광사 주지 대일스님은 "청문을 다른 곳으로 내 줄것과 어린 이집 원생들의 수업시간을 비롯 사찰의 종교행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교회측에 요구했으나 특실당했다"면서 천안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광사는 진정서에서 △교회 출입문 변경 △출입문 위치변경 △시찰소행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불광사측은 "공사소음과 공해로 인해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위험성 때문에 놀이터 이용조차 못해왔다"며 "분쟁의 소지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Buddhist Law Society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It features a large title '법당 개원 및 점안 대법회' and lists various members including the President (효성), Vice President (혜봉), and Secretary (유지재단 이사장 이사).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ociety's office in Seoul.

Advertisement for C.M.M. Industry, a division of Kwang San. The ad promotes their 'Daimon' furniture line, highlighting its durability and modern design. It includes a list of products like tables and chairs, along with contact details for their Seoul office.